

最近 朝鮮 研究의 業績과 그 再出發

[三] 朝鮮學은 어떻게 樹立할것인가

申南澈

(二) 朝鮮學 樹立의 意義

(1)

前□에서 나는 朝鮮學이 可能하다고 하면 그 可能한 諸前提의 依據할바 方法을 畧述하였다. 朝鮮學은 그것이 樹立되자면 決코 獨斷的으로 또는 觀念的으로 □式化되기에 는 너무나 巨大한 勞力과 眞摯한 研究를 要하는 未踏의 境地이다.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主觀的인 □□과 說話的인 史觀으로서는 不금도 그 樹立의 可能을 論證하기에는 너무나 無力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. 朝鮮學은 上古의 檀君說話를 研究함으로써 民族的 紐帶를 □固하게 하는 緣由를 發見하는것만도 아니요. 高句麗 百濟 新羅의 建國史話를 比較論斷함도 아니며 隋, 唐의 入□와 高句麗의 大□을 地□的으로 論明하여 그 領土의 廣大하엿슴을 英雄化시켜서 滿足하는것도 아니다.

또 高麗의 佛教 李□의 儒學을 政治的 關連에서 研究하여 그 民族的 特殊性을 發見하려는 것도 아니요. 花郎道の 再認識 鄭□時期的 起□發展考를 吾人의 앞에 □不하는 것도 아니다. 家族史의 飛□的 研究로써 朝鮮의 特殊性을 樹立하려 하며 士論의 派爭的 起□을 解剖하여 그 國家的 形□을 □□하는 研究□□도 高次的 概念으로서의 朝鮮學의 成立에는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前途□□한바 많다고 생각한다. 또 그밖에 朝鮮語學의 歷史的 研究 金石□의 研究 等 여러 가지 史學的 要素가 있을 것이고 考證的 研究도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것들은 모다 그 分對에 잇어서 吾人의 研究對象이 될 수 잇고, 또 當然히 그리 되어야만 할 것이다. 이 點에 對하여야는 아무도 異議를 □入하지 않으리라.

그러나 以上の 것은 決코 朝鮮學의 本質이 아니다. 그러면 朝鮮學은 大體

어떠한 概念에 依하여 그 本質을 究明하여야 할 것인가.

(2)

日本에서는 「國學」이라는 것에 對하여 論議된지 벌써 二百數十年이고, 中國에서도 亦是 「國學」에 對한 새로운 運動이 오래전부터 일어나서 中國近代 政治史上에도 큰 한페-지를 占하였고 또 그것이 活潑하게 討論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.

새로운 概念 새로운 方法으로써 그들의 歷史的 社會的 條件에 依據하여 歷史的 文化的 遺産을 批判討論하여야서써 그것에 一定한 現代的 坐□를 定하라고 하였다. 그러나 日本과 中國의 그 運動에는 重大한 差異를 認定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니, 前者에 있어서는 「國粹的」이라는 것 後者に 있어서는 「進歩的 改革的」이었다는 것을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다. 나는 兩者에 있어서의 그 差異를 比較하여 朝鮮學 樹立에 있어서의 若干의 參考를 提供하라한다.

日本の 「國學」은 所謂 「四大人」이라고 過□되는 □突冲(一六四〇年生)以後 荷田□□, 賢茂眞□本居□長 등이 國家□□을 基點으로한 「皇國之學」又是 「國學」이라는 概念을 設定하여 古道設의 提唱自然主義, □□論等으로써 「日本的 國學運動」은 □川時代 中期에 이르러서 「漢文明과 印度思想에 對하여 又是 □來의 □□低□의 學風에 對하여 反抗的 改革的 復古的인 學風이 唱□되게 되었다. 이것이 卽 國學으로서 政治史上으로는 動王論의 動機로서 또는 明治維新의 價□양은 一要素로서 重大視되어 있는 것이다.」(河野省三番) 「國學의研究」)라는 것이 日本の 「國學」의 本質이다. 所謂 「漢學에 對하여 「國學」이란 □가 日本에 成立하고 尙古的 國家的 微神으로써 □혀 上代의 文獻을 研究하여 國粹를 發揮하는것이 그 目的이 되었다.

그러나 日本에 所謂洋學---西洋文化가 導入되고 明治維新이 成立되자 「國學에 代하여 일즉이 異端者本로서 迫害를 받는 洋學이 新 日本의 □般者로서 □揭하여 왔다」(伊東多三郎著 「國學의 史的 考察」) 「前科學者인 國□은 이에 멀리 歷史의 저쪽에 있는 存在가 되고 그 國粹의 殘滓는 急激한 社會의 進展에 對하여 巴야흐로 落伍者의 悲哀를 느끼며 따라서 □孜와 歎□하여 生々히 國粹的 反勃的 役割을 演하고 있는 것을□□」(同上)이에 우리도 日本의 所謂 「國學」의 現代的 黨□를 發見할 수가 있을 것이다. 儒學 佛敎에 對立하여 神道와 古道의 宣明을 爲主하는 日本의 國學은 現在에 있어서는 完全히 그 存在의 意義를 喪失하고 마룻다 쉬지 않고, 邁進하는 歷史의 齒車는 그와 같이 日本의 國學運動으로 하여금 必然的으로 그 存在理由를 잃어 버리게 하고 마룻다.

「追記」第一 回分及 第二 回分에는 誤植이 너무 많아 뜻이 通하지 않는 곳
이 여로곳 잇엇습니다. 이에 그 正誤□를 냅니다.

第一 回分

誤 正

第一 段第五行 膾災 膾炙
同 第十行 扶出 □出
同第三十二行 枕念 概念
第四段第九行 基礎的 條件이 基礎的 條件인
第五段第一行 結果로 되게 된 結果가되.....
同 第十二行 慶景 前景

第二回分

第一段第一行 □勞 理勞
第三段第一行 枕念 概念
同 第八行 無知한 無私한
同第十二行 枕念規定 概念規定
同 第十三行 같되다 같으다
同第十七行 나의 問題로 다음에... 나의다음의問題로...